

일본기업의 지속가능개발목표(SDGs)에 대한 인식

-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(SDGs)는 빈곤, 기아, 보건, 교육, 젠더 등 총 1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엔은 이를 수행할 핵심 주체로 ‘기업’을 강조
- 유엔은 2030년까지 SDGs 추진에 매년 2-3조 달러를 집행할 것으로 SDGs 관련 글로벌 시장 규모는 최소 70조엔에서 최대 800조엔으로 추정
- 일본계 기업은 SDGs 추진을 ‘신사업 창출의 기회’ 보다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‘CSR의 일부’로 인식하여 유럽기업에 비해 소극적으로 대처

1. SDGs 개념 및 글로벌 시장 규모

- 유엔은 2015년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(Sustainable Development Goals)에 합의
 - SDGs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공동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연대에 기반한 광범위하고 보편적 과제를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둠
 - 2030년까지 국제사회 차원의 새로운 개발목표로 빈곤, 기아, 보건, 교육, 젠더, 식수, 에너지, 경제, 산업, 불평등, 도시, 지속가능소비 및 생산, 기후변화, 해양, 생태계, 평화,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등 17개 목표¹⁾를 설정
 - SDGs의 전신인 밀레니엄개발목표 MDGs (Millennium Development Goals, 2000년 채택)는 개발도상국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SDGs는 선진국의 문제도 지적하는 동시에 경제·사회·환경을 아우르는 전지구적 문제 해결을 과제로 설정

<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(SDGs) >

SDG 1.	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
SDG 2.	기아의 종식, 식량안보 확보,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
SDG 3.	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
SDG 4.	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/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
SDG 5.	성평등 달성 및 여성/여아의 역량 강화
SDG 6.	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

1) 여기에 연계된 169항목의 구체적 달성기준 및 230개 지표를 설정

SDG 7.	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
SDG 8.	지속적/포괄적/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
SDG 9.	건실한 인프라 구축,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
SDG 10.	국가내/국가간 불평등 완화
SDG 11.	포용적이고 안전한, 회복력 있는,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
SDG 12.	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
SDG 13.	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조치 시행
SDG 14.	해양/바다/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
SDG 15.	육지생태계 보호/복구 및 산림 관리, 생물다양성 보호
SDG 16.	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 및 사법제도, 효과적/포용적 제도 구축
SDG 17.	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

자료 : UN(2015), KIEP, 「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」, 33p. 재인용

□ SDGs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주체로 ‘기업’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임

- SDGs가 이전의 밀레니엄개발목표 MDGs와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을 목표 달성의 주체로 삼고 있다는 점으로 기업이 SDGs 관련한 광범위한 사회적 과제에 도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²⁾
 - 예를 들어 「SDG 8 : 지속적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증진」의 달성기준을 보면 8-1) 일인당 경제성장률 지속, 8-2) 기술향상 및 이노베이션을 통한 높은 생산성 달성, 8-3) 고용창출 및 창조적 이노베이션 지원책 추진 등으로 이는 정부 뿐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 동참 없이는 실현 불가능함
 - 「SDGs 9: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이노베이션 추진」의 달성기준 역시 9-1) 경제발전과 복지 인프라 개발, 9-2) 고용 및 GDP에서 차지하는 산업 섹터 비중 확대, 9-3) 개도국의 제조 중소기업의 시장 접근 확대 등으로 기업의 역할이 중요
- 다시 말하면 기업이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업을 SDGs 추진의 핵심적 주체로 끌어들이고 있음³⁾

□ 글로벌 컨설팅 그룹 딜로이트는 2017년 시점에서 17개 목표별 관련된 구체적 시장과 그 규모를 글로벌 차원에서 산출했는데, 최소 70조엔에서 최대 800조엔 추정

2) 미즈호은행(2019.7.22.)

3) 딜로이트, SDGs 비즈니스 시장 규모

- 유엔은 개발과제의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2~3조 달러의 예산 집행을 선언하는 등 관련 분야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
 - 「SDG 7. 지속가능 에너지」의 경우 발전 및 가스사업, 에너지 개발 등의 사업 영역에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803조엔으로 추정
 - 「SDG 9. 항만 및 방재 인프라 개발 및 노후화 감시 시스템」은 426조엔, 「SDG 11. 에코리폼과 재해예측, 식품택배」는 338조엔으로 추정

< SDGs의 각 목표별 시장규모 추정 결과(2017년) >



자료: 딜로이트, 「SDGs 비즈니스」 시장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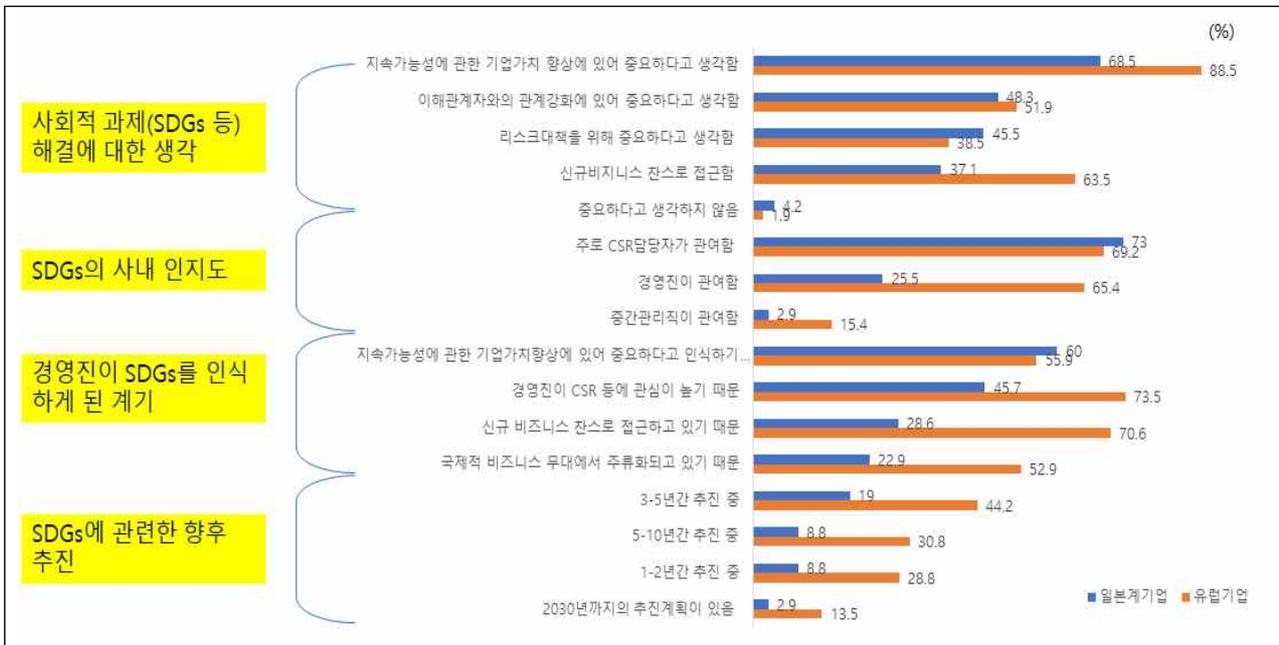
2. 일본 기업의 SDGs 대응

- 대다수 일본 기업들은 SDGs 추진을 기업의 사회적 가치(CSR: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) 실천 차원으로 인식하여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, SDGs 추진에 소극적임
- SDGs 인지도 및 추진 상황에 대해 일본계기업과 유럽기업을 각각 설문조사한 결과⁴⁾ 명확한 차이가 나타남

4) 企業活力研究所「社会課題 (SDGs等) 解決に向けた取り組みと国際機関・政府・産業界の連携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」(2017年)

- 일본계 기업은 SDGs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, 현재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추진하는 경우는 유럽기업에 비해 매우 적은 편임⁵⁾
- 일본계 기업의 경우 특히 SDGs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 찬스를 찾으려는 노력이 적고 리스크 관리 및 CSR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기업이 다수
- 반면 유럽기업의 경우 경영진이 SDGs를 기업가치향상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장기적으로 관련 사항을 추진하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

< 일본계 기업과 유럽기업의 SDGs에 대한 인지도와 추진상황 비교 >



주1: 일본계 상장기업 2,752개사(143개사 응답), 유럽기업 52개사에 대한 설문결과

주2: 조사기간 2016.11.9. ~ 2016.12.26.

주3: 복수응답가능

자료 일단사단법인 기업활력연구소 ‘사회과제(SDGs) 해결을 위한 추진과 국제기관/산업계 연계 형태에 관한 조사보고서’를 미즈호은행국제전략정보부 작성

- 한편 또 다른 조사 결과에서 일본 기업들은 SDGs의 17개 목표 중에서 「SDG 13. 기후변동예의 대응」(53.4%)과 「SDG 8. 일하는 보람과 경제성장」(50.4%), 「SDG 12.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」(48.0%)를 특히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⁶⁾

- 이를 위한 과제는 「경영진과 일반사원 모두 SDGs를 이해하고 실천」(66.2%)이 가장 높게 나타남

5) 그 이유에 대해 일본계 기업의 경우 사내·외에서 아직 SDGs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

6) 일본경제신문이 일본 상장사 및 종업원 100명 이상의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, 637개사(이 중 상당사가 601개사)가 응답

3. 한국에 대한 시사점

□ 한국 기업 및 정부도 SDGs가 강조하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방향 조정이 필요

* 한국 기업들의 SDGs 관련 인지도를 조사한 바, 약 절반(49%)은 SDGs를 들어본 적도 없음⁷⁾

- 한국 기업들은 SDGs 관련 비즈니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, 이것을 자사 비즈니스와 어떻게 연결시켜서 수익창출이 가능할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음
- 한국 정부 및 유관기관은 기업들의 SDGs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관심 고조를 위해 관련 설명회 개최 등이 필요
 - SDGs 관련 비즈니스를 의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는 기업도 실제로는 이미 SDGs 연관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임
 - 따라서 기업들로 하여금 SDGs에 대한 개념 및 시장 규모에 대한 홍보가 우선 과제임
- 또한 해외 기업들의 SDGs 추진 사례 및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

<참고자료>

일본경제신문 기사 (2019.12.20.)

미즈호은행 보고서 (2019.7.22.)

(사)국제무역투자연구소 보고서 (2019.2) 등

7) 조사기간은 2016년 9~10월(1개월간). 응답기업 92개사. 산업연구원,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내기업 인식 현황과 정책과제, 2017.2.20